

SNK, 中 최대 공유 플랫폼 바이트댄스 & 게임 CMGE가 공동개발한 모바일 신작 'All Star Fight' 사전예약 실시

- 바이트댄스 산하 게임사와 CMGE가 장장 3년에 걸쳐 손잡고 준비해...
- 3D 전략 카드게임 'All Star Fight' 중국 전체 지역 출시 막바지 준비
- "SNK 대표 캐릭터 총출동" 바이트댄스 플랫폼을 통해 대대적 마케팅 홍보 예정
- 지난해 CBT 실시 결과 TapTap상 9.1점의 최고 호평 받아



'All Star Fight' 스크린샷(1)

SNK가 모바일 신작 'All Star Fight'의 중국 전 지역 사전예약 돌입 소식을 16일 전했다.

'All Star Fight'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 산하의 게임 개발사와 중국 최대 게임 회사 중 하나인 CMGE(China Mobile Games and Entertainment Group Limited)가 장장 3년이란 시간을 들여 공동개발에 참여한 게임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일 'All Star Fight'는 SNK의 효자 IP 중 하나인 '더 킹오브 파이터즈(이하 KOF)'를 3D 전략 모바일 카드 게임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SNK의 IP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작에는 SNK의 대표 IP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KOF)', '사무라이 쇼다운', '메탈슬러그', '월화의 검사' 등 중국 내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캐릭터들을 한데 모았다. '쿠사나기 쿄', '야가미 이오리', '시라누이 마이', '타치바나 우쿄', '나코루루', '카에데' 등 SNK의 대표 인기 캐릭터들이 스마트폰 너머로 화려한 격투를 펼치게 된다. 각 캐릭터들은 이들만의 화려한 스킬을 발동할 수 있으며, 캐릭터간 조합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사전예약 기간은 5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출시 날짜를 조율해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조석광년(朝夕光年)을 통해 퍼블리싱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석광년은 해당게임이 성공적으로 론칭하기 위해 바이트댄스 플랫폼을 통한 대대적인 마케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All Star Fight' 스크린샷(2)



SNK인터랙티브 전세환 대표는 “이번 게임은 글로벌 최대 플랫폼 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중국 최대 게임 회사인 CMGE가 SNK와 만나 오래전부터 긴밀히 협의해 온 사업 중 하나로 출시가 되면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본다”며 “또한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메탈슬러그 코드: J(가칭)’ 출시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는데 해당 게임 역시 순조롭게 준비 중에 있으며, 텐센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IP 사업들을 통해 금년도 SNK의 실적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All Star Fight'는 지난해 11월 중국 내 게임 유저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약 5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현지 모바일 게임 플랫폼 및 게임 평가 사이트인 TapTap에서는 테스트 기간 동안 최고 9.1점(만점 10점)까지 평점을 기록하며 현지 유저들 사이에서도 높은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All Star Fight' , 현지 모바일 게임 플랫폼 및 게임 평가 사이트 TapTap에서 테스트 기간 동안 최고 9.1점(만점 10점)까지 평점 기록

'All Star Fight'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조석광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